



“2006년 1차 종합물류기업 10개 인증”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류전문기업 발굴·육성을 목적으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의 첫 번째 인증획득기업 10개를 지난 6월 12일 발표했다.

인증획득기업은 단독신청한 4개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신청한 6개 기업군이다.

종합물류기업은 화물운송업과 물류시설업, 물류서비스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함으로써 화주기업에게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 물류업무의 토털아웃소싱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업이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은 단독 또는 5개 이내의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 홈페이지(<http://cilc.koti.re.kr>)를 통해 기업체 스스로 모의평가를 실시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금번 10개의 인증 종합물류기업은 자체평가후 접수된 신청서류를 토대로 産·學·硏의 물류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심사(현장실사를 포함)를 거쳐 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해양수산부 공무원과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장 및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선정되었다.

인증심사는 국내외 네트워크 등 서비스 범위의 다양성, 매출액 등 기업규모, 기업의 안정성, 전문성, 제3자물류매출 비중 등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졌다.

금번 인증결과를 보면, 하역, 보관, 운송, 기업물류, 택배 등 물류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서비스 구조를 가진 기업일수록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으며, 부분적

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전략적 제휴 제도를 통해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여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번 인증에서는 6개의 전략적 제휴기업군이 인증을 받음으로써 전략적 제휴 제도가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효과 외에도 업무제휴를 통해 종합물류서비스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는 물류기업들이 계약을 투명화하고, 해외진출 활성화에도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물류관리사 등 전문인력의 채용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있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등 3개 부처에서는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와 함께 오는 7월 중으로 10개 인증획득 기업이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전략, 서비스 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행사를 기획하고 있음을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인증종합물류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류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통관대행 허용, 물류단지 우선 입주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한솔CSN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획득한 한솔CSN은 2006년 6월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취득함에 따라, 종합물류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고, 물류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이루게 되어 기존고객 유지 및 서비스확대, 그리고 신규 수주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 종합물류기업 인증이 3PL 시장 확대를 유도함에 따라 향후 매출 증대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기업가치 상승으로 인해 주가상승까지 주주 가치 향상에도 기여하리라 보고 있다.

▶ 대한통운



“그간 추진해온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 등 세계적 물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면서 “1만1천여 대의 직영장비와 국내최대 물류인프라, 전문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의 핵심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대한통운 이국동 사장은 포부를 밝혔다.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대한통운은 대표적인 종합물류기업이라는 위치를 재확인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국제 및 TPL조직을 강화하고 유능한 인력을 집중 배치해 그간 추진해온 글로벌 물류기업으로의 향보를 한층 가속화하고 있다.

대한통운은 7개 법인 18개 거점이라는 한국 물류기업 최대의 해외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며, 지속적인 거점확보와 국제적인 신규사업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례로 올해 초 한국 최초로 베트남에 종합물류 합작법인을 설립했으며 4월에는 중국 상하이에 현지법인인 한통물류(상하이)유한공사를, 7월에는 대한통운재팬주식회사를 설립 영입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 7월 3일 일본법인인 대한통운재팬의 설립으로 대한통운은 한중일 3국을 연결하는 물류네

트워크를 갖추게 됐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NVOCC(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사업을 보다 확대해 한국-중국-일본을 연결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중이다. 현재의 동경-평양 카훼리 라인을 중국으로까지 확대하고, 중국에서 한국, 일본, 미국으로 이어지는 신규 사업도 곧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하역사업분야에서 최근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 육성 프로젝트에 인증업체 중 유일하게 참여해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통운이 운영과 제품의 선적을 맡고 있는GM대우의 New KD센터는 세계 14개 국으로 GM대우의 자동차 부품, 반제품을 수출하게 되며, 정상운영이 되는 2007년부터 120억 상당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다.

이외에도 하반기 중 런던 법인을 설립해 리비아 대수로 공사의 자재 납품과 해상운송사업을 추진하고, 미국 국제택배 취급점과 직영 거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대한통운은 최종적으로 한국-외국간, 외국-외국간 물자 흐름을 모두 대한통운의 네트워크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범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전 세계 어디로든 윈스탑 물류서비스가 가능한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물류**

(첨부, 2006년 제1차 종합물류기업 인증대상)

기업명(제휴기업명)	제휴업체	인증부처
(주)현대택배	-	건교
(주)한진	-	건교·해수
(주)선광	-	건교·해수
(주)동방	-	건교·해수
대한통운(제휴)	대한통운(주), 대한통운국제물류(주)	건교·해수
유니온스타 로직스	태영상선(주), 우편통운(주), 우편육운(주) 한국통운(주), 태영산구국제물류(주)	건교·해수
천일정기회를 자동차(제휴)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 (주)천일모터프레이트	건교
한솔CSN(제휴)	한솔씨에스엔(주), 삼육트럭터(주)	건교
KCTC(제휴)	(주)케이씨티시, 고려종합국제운송(주)	건교·해수
LOEX(제휴)	동원산업(주), (주)동영글로벌프라자 조양국제종합물류(주)건교	건교